



Received: 2026/08/12
Revised: 2026/08/24
Accepted: 2026/09/15
Published: 2026/09/30

***Corresponding Author:**

Jeong-Hyun Kim
Tel: +82-42-878-2428
E-mail: kimjhnnav@naver.com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전의 전 영역 통합작전 추세를 고려하여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연계성을 비교·분석한다. 대표적 전략가인 조미니의 지상전략과 마한의 해양전략 사상을 고찰하고, 나폴레옹 전쟁과 러·일전쟁(쓰시마 해전)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적 적실성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전략의 결정적 지점, 전력 집중, 내선 작전 개념은 마한의 제해권, 함대결전, 전략적 요충지 이론으로 확장되어 상호 긴밀히 연계·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합참 차원에서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군사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기획 및 합동교리 발전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terconnectedness of land and maritime strategies in light of the modern trend toward all-domain operations. By examining the core strategic thoughts of representative strategists—Antoine-Henri Jomini's land strategy and Alfred Thayer Mahan's maritime strategy—the study examines their theoretical relevance through the cases of the Napoleonic Wars and the Russo-Japanese War (focusing on the Battle of Tsushima). The findings confirm that the foundational concepts of land strategy, such as the decisive point, concentration of mass, and interior lines, demonstrated a close historical linkage with Mahan's theories of command of the sea, fleet decisive battle, and strategic choke poi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strategic force, and operational planning, and joint doctrine development for strategic policy at the Joint Chiefs of Staff level to establish a well-balanced military strategy that prevents over-reliance on any specific domain.

Keywords

지상전략(Land Strategy),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 해양력(Sea Power),
제해권(Command of the Sea)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비교사례 연구: 나폴레옹 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Comparative Case Study of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Focusing on the Napoleonic Wars and the Russo-Japanese War

황종현¹, 김정현^{2*}

¹해군 소령/해군대학 학생장교

²해군대학 해양 전략·전력학처 교수

Jong-Hyun Hwang¹, Jeong-Hyun Kim^{2*}

¹LCDR, ROK Navy/Student officer, Naval War College

²Professor, Department of Maritime Strategy and Force, Naval War College

1. 서론

오늘날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장영역(domain)이 기존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및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고, 무기 체계의 투사력(power projection)이 증대됨에 따라 전 영역이 상호 중첩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작전의 수행 개념으로써 ‘통합작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각 영역의 유기적 통합을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대표적 전사를 통한 비교를 통해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연구절차로는 먼저 각 전략별 대표성과 시대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지상전략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쟁술(Art of War)』을 저술한 앙투안 앙리 조미니(Antoine-Henri Jomini)(1779~1869)의 사상을, 해양전략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The Inf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1840~1914)의 해양전략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조미니의 전략사상 형성에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나폴레옹전쟁¹⁾과 마한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1) 조미니(Antoine-Henri Jomini)는 그의 명저 『전쟁술』에서 나폴레옹 전역(campaigns)을 실증 사례로 적극 활용했다([1], p. 419).

시절 발생한 러·일전쟁²⁾ 전사를 통해 이들의 전략이 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³⁾

이어지는 2장에서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개관하고,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을 고찰함으로써 나폴레옹전쟁과 러·일전쟁의 비교분석 단초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조미니의 지상전략을 바탕으로 나폴레옹 전쟁을, 마한의 해양전략을 바탕으로 러·일전쟁(쓰시마해전을 중심으로)을 분석하겠다. 이후 4장 결언에서는 역사 속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발전양상을 고려한 군사전략적(합참)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

2. 개념 및 이론 고찰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지상과 해양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는 별개의 영역(domain)이다. 오늘날 합동작전의 수행 개념으로서 ‘전 영역 통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선행(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개관하고,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전략사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2.1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개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활동 영역은 땅으로부터 가까운 강이나 호수, 그리고 더 나아가 바다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상전략이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영역이 바다로 확장되며 해양전략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무기체계의 발전(전력투사 능력 신장)으로 작전 영역의 중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지상과 해양 전략을 작전공간, 목표, 주력 수단 등 3가지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작전공간 측면에서 지상은 작전공간이 고정되어 있고, 은폐와 엄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바다, 강,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작전공간이 개방적이라 비교적 은폐와 엄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비교이다. 지상전략은 영토의 확장과 방어를 목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적의 수도를 포함하여 주요 전략목표의 점령과 더불어 적의 주요 지상세력을 격멸하는 것이 되었다. 반면에 해양전략의 목표는 아측은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적의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력 수단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지상전략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주요 병종은 보병·포병·기갑 등과 더불어 지상 기반 항공세력을 포함할 수 있다. 반면에 해양전략을 구성하는 주력수단은 해군에서 좀 더 진화, 발전하여 분화한 해군·해경·해병대 등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먼저 해양전략을 정의하면,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양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상전략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상세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 p. 4).

이상으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작전공간, 목표, 주력수단이라는 3가지 요소로 비교하였고 그 개념을 간략히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전략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2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전략사상

앙투안 앙리 조미니(Antoine-Henri Jomini, 1779~1869)는 나폴레옹 전쟁의 격동기를 군인으로 서 직접 체험하며 근대 군사학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전략가이다.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1914)은 근대 해전사를 대전략적(grand strategy)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

2) 마한의 사상은 미국 해군대학의 학생 장교들에게 교육되었음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해군은 미국 해군보다 먼저 마한의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적 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러·일전쟁(쓰시마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한 계획을 수립한 도고의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 중령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마한에게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다([2], p. 237).

3) 정치사회현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현상의 존재양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그 인과적 생성경로를 밝혀내며 더 나아가 미래의 현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함에 있다면, ‘비교분석’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플링(Rudyard Kipling)이 그의 시에서 “영국 깃발:그저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애기했듯이 우리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 pp. 7, 12; [4], p. 86).

여 ‘해양력(sea power)’이라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해양전략의 지평을 열어젖힌 지정학자이자 해양 전략가이다. 흥미롭게도 마한 해양전략의 사상적 뿌리는 지상전략의 거장인 조미니의 이론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다.⁴⁾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전략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쟁사례 분석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겠다.

2.2.1 조미니의 군사전략

조미니는 프랑스군의 마르샬 네이(Marshal Ney)의 참모로 복무하며 나폴레옹의 천재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목격하였고, 이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동서양 군사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미니 전략사상의 핵심은 “전쟁에도 기본원칙과 전술적 법칙 등 과학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신념에 있다.⁵⁾ 그는 전장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학습 가능한 지식 체계로 변모시켰다. 조미니는 전쟁의 승리가 우연이나 직관이 아닌, 특정한 과학적 법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승리의 주요 원칙은 네 가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의 파악이다([8], p. 184).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요충지를 넘어, 그곳을 점령하거나 통제했을 때 적의 전체 방어 체계나 통신망이 붕괴될 수 있는 ‘전략적 중심(COG, center of gravity)’을 의미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지리적 결정적 지점은 강, 산맥의 고개, 주요 도시와 같이 지형 자체가 부여하는 이점을 가진 장소가 될 수 있다. 기동에 있어서 결정적 지점은 적 부

대의 배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적 약점으로, 주로 적의 보급로로 볼 수 있다. 조미니는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결정적 지점을 정확히 식별해내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결정적 지점은 지리적인 배경과 전투 상황과 조건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휘관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력 집중의 원칙’(concentration of mass)으로 볼 수 있다([8], p. 182). 조미니는 병력의 분산을 가장 치명적인 실패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의 원칙은 “아군의 주력을 적의 약점인 ‘결정적 지점’에 집중하여 국지적 우세를 형성하는 것”이다. 비록 전체적인 병력 규모에서 열세일지라도, 전력의 분산과 배치, 기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여 적의 전력보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작전선(lines of operation)과 내선(interior lines) 작전’의 원칙이다([8], pp. 187-188). 이 원칙은 앞에서 논의한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과 ‘집중의 원칙(concentration of mass)’을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적 지점’에 ‘전력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ways)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미니는 군대의 이동 경로인 ‘작전선’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했다. 내선(interior lines)은 작전선의 종류 중 하나로, 분산된 여러 적군 사이의 중앙적 위치(central position)를 점유하는 기동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군은 적보다 짧은 거리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과 더불어 우세한 전력을 배치하여 적 제대들을 각개 격파할 수 있다. 외선(exterior lines)은 아측의 기동 능력이 탁월하여 적을 포위하는 기동할 때 유리하지만, 자칫 아군이 분산되어 타격받을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선보다는 내선 작전을 선호하였다. 나폴레옹이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조미니는 이러한 ‘내선의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논증하였다.

넷째, ‘공세와 주공격(main effort)’의 원칙이다([6], pp. 214-215). 조미니가 공격을 방어보다 우위에 두었던 이유는 공자가 방자에 비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전투의 시간과 장소 선택) 자신이 원하는 지점(결정적 지점)에 주력을 집중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 시 하나의 명확한 ‘주공(main effort)’이 존재해야 하며, 나머지 조공 부대는 적을

⁴⁾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의 학장이자 군사학 교수였던 데니스 하트 마한(Dennis Hart Mahan)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부친의 서재와 학문적 환경 속에서 당시 웨스트포인트의 핵심 교재였던 조미니의 군사전략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흡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군사사상적 토양은 마한이 이후 해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분석할 때, 조미니의 ‘과학적 전쟁원칙’을 구조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6], pp. 11, 214-215; [7], p. 194).

⁵⁾ 조미니 역시, 전장의 안개(fog of war)와 군사적 천재의 필요성을 역설한 클라우제비츠와 같이 “전쟁에서 기본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술(art)이다.”라고 그의 주요 저서인 『전쟁술』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미니의 문제의식은 술(art)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전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연구와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전쟁을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전술적 법칙 등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술(art)의 영역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이었다.

기만하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정적 지점이나 주공의 설정 없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전력의 분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미니의 군사전략은 전쟁을 운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술(art)’의 영역으로만 보기보다는,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는 ‘과학(science)’의 영역에서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조미니가 정립한 군사전략의 핵심은 네 가지 전쟁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 식별, ‘전력 집중’, ‘작전선과 내선작전’, 그리고 ‘공세와 주공격(main effort)’이 그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미니의 통찰은 마한과 같은 해양 전략가들에게도 강력한 이론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조미니의 군사전략 원칙들이 해양이라는 영역에 어떻게 투영되고 변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2.2 마한의 해양전략

마한이 지상전략을 바탕으로 해양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미국이 처한 엄중한 지정학적 위협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반구 전역에 걸쳐 공세적인 제국주의적 접근을 감행하며 미국의 안보와 무역로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 유럽 강대국들이 해양을 통해 서반구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대륙 지향적 사고에 머물러 있던 미국 내에서는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바다를 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해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마한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번영과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논증하였고, 또한 이를 ‘해양력(sea power)’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였다([10], pp. 71-113). 마한의 해양전략은 단

순히 해군력(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머물지 않고 국력의 원천으로서 바다를 바라보는 국가수준의 대 전략적(grand strategy)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주요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력(sea power)의 개념과 순환구조를 제시한다([10], pp. 71-113). 마한은 국가의 위상이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육군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해양력이란 ‘바다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보호하며, 적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마한은 해양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축으로 ‘생산(무역)’, ‘해운(선박)’, ‘해외기지 및 거점(식민지)’을 제시했다([10], pp. 71-76). 국가가 생산한 물자를 해외로 수출하여 부를 축적하고(생산),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강력한 상선단과 이를 호위할 해군력을 보유하며(해운), 항해 중인 함선에 연료와 물자를 보급하고 수리할 수 있는 해외 기지를 확보하는 것(식민지/거점)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비로소 강력한 해양력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조미니가 강조한 ‘기지’와 ‘보급선’의 개념을 전 지구적 차원의 해상 교통로(SLOC)로 확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한은 해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해양력을 결정짓는 6가지 구성요소(지리적 위치, 지형적 구조, 영토의 범위, 인구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가능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둘째, 해양(해군)전략으로써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의 개념을 강조한다([7], p. 203). 마한이 제시한 해양(해군)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해권(absolute sea control)’의 확보에 있다. 이는 아츠의 함선이 바다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적측의 이용은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마한은 해상을 공유지이자 거대한 고속도로로 간주했으며, 이 통로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해

6) 1823년 12월 2일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연례교서에서는 미국 외교의 중요한 세가지 원칙을 나타내며, 당시 미국이 당면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먼로 독트린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① 비식민의 원칙(principle of noncolonization), ② 불개입 원칙(principle of nonintervention), ③ 고립 원칙(principle of isolation)을 말한다. 당시 미주 대륙으로까지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는 유럽 열강 세력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9], p. 286).

7) 마한에게 있어서 제해권([11], p. 15; [12])의 개념은 “해양에서 인원과 물자를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수송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적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날 제해권은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 또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해양우세의 정도를 말하며, 완벽한 제해권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양통제(sea control)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안을 방어하거나 적의 상선을 습격하는 소극적 전략(*guerre de course*)을 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신,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결정함대(*decisive fleet*)로 적의 주력함대를 직접 격파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공세적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해양전략 개념은 조미니의 전략사상에서 ‘결정적 지점’에 대한 점유를 위해 전력 집중과 공세의 원칙을 해양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상전략의 개념을 해양이라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아측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의 보장’을 위한 ‘제해권’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함대결전(*fleet decisive battle*)과 집중의 원칙을 제시한다.⁸⁾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마한은 조미니의 ‘전력 집중의 원칙’을 해양전략에 적용한다. 그는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분산을 강요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적을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군의 결정함대(주력함대)를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전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 바로 ‘함대결전’ 사상이다.

마한에 따르면, 해군력은 결코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함대를 여러 항구에 나누어 배치하거나 연안 방어에 할애하는 것은 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며, 하나의 강력한 주력 함대(*main battle fleet*)를 형성하여 적의 함대와 정면 대결을 펼쳐서 승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함대 교전을 통해 적의 해군력을 궤멸시킴으로써 영구적인 해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넷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지정학적 이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7], p. 205). 마한의 주장이 특이한 점은 해양의 특성과 지정학을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아측이 선점해야 할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전략과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마한은 단적으로 지리적 요건이 해양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특히 주요 항로가 수렴되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나 운하, 해군기지 등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⁹⁾ 아측의 내선

작전을 보장하고, 적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양대 대양(대서양과 태평양)에 면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와 같은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방어할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조미니의 ‘작전선’의 개념을 지상전략의 관점을 해양전략으로의 발전으로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한의 해양전략은 조미니가 지상전에서 도출해낸 전쟁 원칙들을 해양이라는 새로운 영역(*domain*)으로 전환하여 전략 개념을 확장 및 발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마한은 조미니의 이론이 나폴레옹 전쟁 사례와 같이 지상이라는 단일 영역에만 국한되는 군사전략이 아니라,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의 본질을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전략사상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Main strategic thoughts of Jomini and Mahan

Antoine-Henri Jomini	Alfred Thayer Mahan
Decisive Point	Concept and Virtuous Cycle of Sea Power
Concentration of Mass	Securing Command of the Sea
Lines of Operation and Interior Lines	Fleet Decisive Battle and Principle of Concentration
Offensive Conduct and Main Effort	Strategic Choke Points and Geopolitical Importance

3. 역사적 비교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을 이론적 틀로 삼아, 나폴레옹 전쟁과 러·일전쟁을 각각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관점에서 분석 및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각 전략사상에 대한 적실성을 확인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⁸⁾ 마한은 해양전략을 ‘제해권’ 확보의 측면에서 수립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우세한 함대를 통해 적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함대결전’([13], p. 9) 개념을 강조한다.

⁹⁾ 해양전략가이며 지정학자이기도 했던 마한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발간된 해인 1890년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 지에 “외부 세계를 주시하는 미국(*The United States*

looking outward)”이라는 논저를 기고하면서 파나마 지협에 지정학적 중요성([14], p. 12)을 역설하며 미국 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기도 한다.

3.1 조미니의 지상전략: 나폴레옹 전쟁

조미니는 그의 명저 『전쟁술(Précis de l'art de la guerre)』에서 나폴레옹 전역(campaigns)을 실증 사례로 적극 활용했다. 조미니의 이론 체계 자체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사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보편타당한 과학적 원칙’으로 공식화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조미니가 『전쟁술』에서 이론적 근거로 삼은 대표적인 나폴레옹 전쟁시 주요 전역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겠다.

3.1.1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 이탈리아 전역(1796~1797)([15], pp. 3-75-12~18)

조미니는 이 전역을 자신 이론의 핵심요소인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 파악을 통한 전력 집중의 실증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나폴레옹이 분산된 적군 사이의 중앙을 장악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적군(결정적 지점)을 각개격파한 과정을 분석하며, 전체 병력이 열세일지라도 ‘결정적 지점’에서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전쟁의 과학적 원칙임을 피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당시, 프랑스군은 보급 상태가 최악이었으며 병력 수도 연합군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약 3만 8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6만 명에 달하는 오스트리아와 사르데냐 연합군을 상대로 혁신적인 기동전을 선보였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이 서로 합류하여 전력을 집중하기 전에 그 사이를 파고들어 두 군대를 분리시켰으며, 12개월 동안 12차례의 승리를 거두며 롬바르디아 평야를 장악했다. 이 전역은 1797년 캄포포르미오 조약 체결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탈리아 원정은 나폴레옹의 천재적인 군사적 자질이 세계적으로 처음 드러난 무대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방어적이었던 프랑스 혁명전쟁은 침략전쟁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사학적으로는 신속하게 행군하고 유연하게 작전행동을 취하며 적의 취약 부분에 병력을 집중하는 현대적 기동전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전역의 승리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인기를 급상승시켜 그가 훗날 제1통령과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결정적인 군사적 발판이 되었다.

3.1.2 전력 집중(Concentration of Mass): 마렝고 및 울름 전역(1800, 1805)([15], pp. 3-75-22~35)

조미니는 이 전역들을 조공(助攻)으로 적을 정면에서 고착시키고 주공(전력집중, concentration of mass)이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전략적 우회기동’의 모범 사례로 보았다. 조미니가 『전쟁술』을 통해 주장한 전쟁 승리의 비결이 전력 집중을 통해 적의 보급로와 통신선을 장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 사례로부터 실증된 것이다.

1800년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 대담한 기동을 통해 마렝고 평야에서 오스트리아군 7만 명과 대치했다. 초기에는 오스트리아군의 기습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드제 장군의 극적인 반격으로 오스트리아군 절반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어 1805년 울름 전역에서는 대육군(Grande Armée)의 압도적인 포위 기동을 통해 오스트리아 마크 장군 휘하 전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전과를 기록했다. 이는 대규모 유혈 전투 없이 기동만으로 아군의 전력을 집중한 결과 상대적인 우세로 적의 주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나폴레옹 전략의 정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렝고 전투의 승리는 뤼네빌 강화조약으로 이어져 프랑스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나폴레옹 제1제정 수립의 군사적·정치적 기초가 되었다. 울름 전역 역시 오스트리아 주력군을 전투 초기에 괴멸시킴으로써 프랑스가 중유럽의 패권을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전역들은 나폴레옹이 지향한 전략(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적 지점을 식별하고 기동을 통한 ‘전력 집중’과 공세적 행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3.1.3 작전선과 내선 전략(Interior Lines): 아우스터리츠 전투(1805)([15], pp. 3-75-36~52)

조미니는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에 대한 역량 집중 원칙이 전장에서 어떻게 승리를 보장하는지 증명하는 최고의 사례로 꼽았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했던 전략이 ‘내선(interior lines) 작전선’의 활용이었다. 나폴레옹은 전장의 결정적 지점인 프라첸 고지(러시아군의 내선에 위치)를 바로 파악하였으며, 프랑스군의 작전선을 전체

병력은 열세일지라도 해당 지점에 지향토록 함(내선 전략, interior lines)으로써 러시아군의 중앙을 돌파 후, 상대적 우세를 확보한 가운데 좌·우익의 러시아 군을 각개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05년 12월 초, 나폴레옹은 약 7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늘날 체코 동부 지역인 아우스터리츠에서 약 8만 명의 러시아-오스트리아 연합군에 맞서게 된다. 당시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나폴레옹에 대응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자신이 원하는 지형으로 유인하는 치밀한 기만술을 펼쳤다. 그는 아군 우익을 의도적으로 취약하게 노출하여 연합군 총사령관 쿠투조프 장군이 프랑스군을 쉽게 섬멸할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었다. 연합군 주력이 프랑스 우익을 공격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며 전선 중앙이 약화되자, 나폴레옹은 프라첸 고지(Pratzen Heights) 후방에 은폐시켜 두었던 예비대를 투입했다. 오전 9시경 안개가 걷히는 시점에 맞춰 나타난 프랑스군은 고지를 신속히 점령하여 연합군 전선을 두 동강 냈고, 분리된 적들을 각개 격파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7천 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연합군은 약 2만 7천 명의 병력과 180여문의 대포를 잃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1주년에 거둔 결정적 승리로, 그를 유럽 대륙의 명실상부한 지배자로 등극시켰다. 이 승리로 인해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붕괴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연합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특히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신성로마제국이 이 전투의 여파로 해체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의 백미로서 이후 10년 동안 이어질 나폴레옹 제국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3.1.4 공세 행동과 주공격(Main Effort):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1806)([16], pp. 104-128)

조미니는 예나 전역을 통해 작전선의 올바른 선택과 ‘공세 행동과 주공격(main effort)’, ‘섬멸적 추격(vigorous pursui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군이 채택한 사단 편성(division system)이 가지는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기동성을 높이 평가했다. 나폴레옹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신속하

게 병력을 집중시켜 공세적으로 각개 격파하고,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적군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킨 과정을 ‘공세 행동과 주공격’ 원칙의 모범적 사례로 본 것이다.

1806년,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비밀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대항하려던 프로이센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전역을 시작했다. 이 전역에서 프랑스군은 당시 프로이센군이 집착하던 분당 70보의 전통적 보행 속도보다 훨씬 빠른 분당 120보의 행군 속도를 발휘하여 기동력을 극대화하며,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주공격 부대를 통한 공세 행동에 집중한다. 나폴레옹은 대육군을 ‘대대형(bataillon carré)’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며 소규모의 분산된 전력을 통해 프로이센군 주력을 묶어두고, 주공격 부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기동전을 펼쳤다. 10월 14일, 나폴레옹은 예나에서 프로이센군 주력을 격파했고, 같은 날 다부 원수는 아우어슈테트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 연합군을 물리쳤다. 양측 합쳐 약 23만 4천 명의 병력이 참가한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던 프로이센 구식 군대를 완전히 압도했다. 전투 승리 후 나폴레옹은 맹렬하고 과감한 추격(섬멸적 추격, vigorous pursuit)을 전개하여 프로이센군이 재편성할 여유를 주지 않고 수도 베를린을 점령했다.

Table 2. Analysis results of Napoleonic campaigns in The Art of War

Campaign	Belligerents & Forces	Lessons Learned (Remarks)
Italian (1796–1797)	French Forces (approx. 37,000) Austrian–Piedmontese Allied Forces (approx. 60,000)	Identified the opponent’s ‘Decisive Point’, created a separation effect on the enemy through maneuver, and executed defeat in detail (Concentration of Mass).
Marengo and Ulm (1800, 1805)	French Forces (220,000 / 235,000) Austrian–Russian Allied Forces (235,000 / 278,000)	Severed the enemy’s line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of Mass’ and strategic turning movements.
Battle of Austerlitz (1805)	French Forces (approx. 75,000) Russian Forces (approx. 85,000)	Established lines of operation through ‘Interior Lines Strategy’, seized the decisive point (Pratzen Heights), and defeated the dispersed enemy in detail.
Battles of Jena and Auerstedt (1806)	French Forces (approx. 122,000) Prussian–Saxon Allied Forces (approx. 114,000)	Achieved strategic objectives (occupation of Berlin) through ‘Offensive Conduct, Main Effort’, and Vigorous Pursuit.

예나-아우어슈테트 전역의 패배로 인해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프로이센 군대는 사실상 궤멸된다. 1807년 체결된 틸지트 조약을 통해 프로이센 영토는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거액의 보상금과 군비 제한이 부과되는 수모를 겪었다. 나폴레옹은 베를린 입성 후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봉쇄령(베를린 칙령)’을 선포하며 유럽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미니 전략사상을 통한 나폴레옹 전역(campaigns)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다음 절에서는 마한의 해양전략을 분석의 틀로 삼아 러·일전쟁과 쓰시마 해전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3.2 마한의 해양전략: 러·일전쟁과 쓰시마 해전

러·일전쟁(1904~1905)과 그 대미를 장식한 쓰시마 해전은 근대 세계 전쟁사와 해전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이 전쟁은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증기선과 거포, 장갑으로 무장한 근대식 강력한 철갑함들이 공해상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한 최초의 대규모 해전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개된 이 세기의 격돌은, 마한이 정립한 해양력 이론과 조미니로부터 이어진 전쟁의 보편적 원칙들이 실제 해양의 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승패를 결정짓는지를 입증한 군사전략의 실증 무대로서 그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마한이 제시한 4가지 핵심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러·일전쟁과 쓰시마 해전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3.2.1 해양력의 순환구조(생산-해운-해외기지): 영·일 동맹

러·일전쟁 중 해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해양력의 순환구조와 연계하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해운(해군력 포함)과 해외기지일 것이다. 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연계하여 논의하면 명확하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영·일 동맹의 결과, 해외기지를 가진 영국이 러시아 발트함대의 주력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운용할 수 없게 하여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당시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주요 항구에 발트함대가 기항하는 것

을 영국이 거부하여 함대 보급의 부실과 함정 정비 부족 및 승조원 피로도 누적을 야기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영·일 동맹으로 영국의 강력한 해군력(세계적 정보력)과 국제적 위상(세계적 생산력)을 활용한 상승효과를 확실하게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영국을 통해 발트함대에 관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는 해군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태평양함대는 여순에서, 발트함대 주력은 대마도에서 각개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등에 업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해외차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등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3.2.2 제해권 확보: 러시아 태평양함대 괴멸

마한 해양전략의 궁극적 목표인 제해권(command of the sea) 확보 여부는 러·일전쟁 전체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 일본 해군은 전쟁 초기 공세적 연합함대 운용을 통해 황해와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본은 제해권을 확보해야만 지상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한반도와 만주 전선으로 지상병력과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지상전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는 병참을 시베리아 철도에 의존하였고, 제해권 확보를 위한 함대운용을 요새함대 개념 하에 소극적으로 군함을 부두에 묶어 놓거나, 항내에 투묘하여 지상포대처럼 운용하였다.¹⁰⁾

결국에는 일본 연합함대와 관동군이 뤼순, 블라디보스토크, 한반도에 분산 배치 중이던 태평양함대와 지상군을 각개 격파 및 함동작전으로 괴멸시킴으로써 극동전역에서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극동지역에서의 제해권을 바탕으로 전쟁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1차적으로는 극동전역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어지는 러시아 본토에서 출항하여 태평양 함대와 합류하려는 발트함대와의 결전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

¹⁰⁾ 마한은 美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근무하며, 1911년 『해군전략(Naval Strategy)』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러·일전쟁을 요새함대(fortress fleet)와 현존함대(fleet in being)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요새함대(fortress fleet)를 지향해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 p. 238).

3.2.3 함대결전과 집중의 원칙: 쓰시마 해전

러·일전쟁의 쓰시마 해전은 마한의 ‘함대결전’(fleet decisive battle)과 집중의 원칙(함대 집결 운용, 특히 주력)이 전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은 함대 전력을 극동(워순, 블라디보스토크)과 유럽(발트해)으로 분산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연합함대 전력을 집중하여 발트함대 합류 전에 극동함대를 격파하는 데 운용하였다. 먼저 일본은 1905년 1월 러시아의 워순함대(태평양함대)를 무력화시켰다. 그 후 희망봉을 돌아서 약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발트함대의 승조원 사기가 저하되고 함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쓰시마 해협(대한해협)에 진입하였다. 발트함대의 위치와 상황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항해하는 방향의 병목지점(choke point)을 막고 있던 일본의 결전함대는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발트함대를 섬멸했다([19], pp. 288-294). 이 함대결전으로 러시아의 해군력은 무력화되었고, 동북아 지역의 제해권은 확실하게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지리적 위치의 불리함으로 인해 적시에 극동함대와 발트함대의 세력을 통합하지 못하는 전략적 우를 범했다. 이 사례를 통해 상대보다 우세한 단일 주력 함대로 운용하는 것이 해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원칙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4 전략적 요충지와 지정학적 중요성: 쓰시마 해협

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쓰시마 해전은 전략적 요충지(choke point)인 쓰시마 해협을 일본이 해양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승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당시 청·일전쟁 승리 이후 조선(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쓰시마 해협에 가지는 지리적 이점(근접성)을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 요충지(choke point)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결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주요 해군기지인 워순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위치한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였다. 일본 연합함대는 내선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분할된 태평양함대를 각개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러시아 발트함대(사령관, 제노비 로제스트벤스키)에 쓰시마 해협 통과를 강요하여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극동으로 진입한 러시아의 발트함대는 장기항해로 인해 극심한 승조원 피로도 문제와 정비여건 불비에 따른 선체 부식, 그리고 석탄 적재의 한계 등 군수문제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 우회 항로인 쓰가루 해협이나 라페루즈 해협은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너무 길었기에,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일본이 예상한 대로 쓰시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0], pp. 341-346).

이는 마한이 주장한 전략적 요충지(choke point)의 선점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증명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적이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해협을 선점함으로써 상대적 기동의 자유와 더불어 함대전력을 집결시켜 해전에서의 우위를 차지한 반면, 러시아는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choke point)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다 궤멸을 자초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지상전략은 나폴레옹 전쟁 사례를, 그리고 해양전략은 러·일전쟁(쓰시마 해전)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미니의 지상전략이 마한의 해양전략 사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사상은 상호 분리·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계·통합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군사전략(합참)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

4. 결론

지금까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장 영역(domain)의 중첩이라는 현대전의 환경 변화에 주목하

11) 러·일전쟁(1904~1905) 발발 직전까지 러시아령 유럽평원과 유럽 중부 및 남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철도망의 건설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비하였으므로 육상으로 이동할 경우 직접 건너 말·낙타와 같은 동물을 타고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다([17], p. 45; [18], pp. 94-98, 112-115).

여, 군사사상사적 관점에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연계성을 조미니·마한의 군사전략사상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조미니의 전략사상 형성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나폴레옹 전쟁과, 함대결전 등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러·일전쟁(쓰시마 해전)을 대상으로 역사적 비교를 진행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2장에서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공간, 목표, 주력 수단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조미니의 지상전략 원칙(결정적 지점, 전력 집중, 작전선과 내선, 공세 행동)과 이를 해양 영역으로 창의적으로 확장·발전시킨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해양력 순환구조, 제해권, 함대결전, 전략적 요충지)을 상호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나폴레옹 전쟁과 러·일전쟁(쓰시마 해전)을 분석함으로써,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이 전쟁에서 실증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념 및 이론 고찰, 역사적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이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태생적·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해 온 개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전략적(합참)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장 영역의 중첩과 무기체계의 투사력 증대는 지상과 해양, 공중을 포함한 전 영역의 유기적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군종)에 치우친 전략 수립이나 전력 건설을 예방하기 위해 합참 차원의 균형잡힌 군사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군사전략의 3대 축(전략·전력·작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전략기획 측면에서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편중된 위협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지상군 중심으로 편성된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과도하게 천착할 경우, 균형잡힌 군사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반도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중국, 러시아 등)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주변국의 위협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전력기획 측면에서 육·해·공군 전력의 균형 발전을 통한 균형전력(balanced forces) 건설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연구개발, 구입 등)가 각 영역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통합적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별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작전기획 및 시행 측면에서, 합동교리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훈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리가 이러한 작전개념을 적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군의 합동작전 개념인 ‘통합작전’ 구현을 위해서는 각 군의 교리와 합동교리의 연계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교리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리발전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비역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교육사 등 교리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동교리와 각 군 교리의 교리발전 업무부서 간 해당업무 감독관계 재설정을 통해 교리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군이 추구하는 합동작전 개념, ‘전 영역 통합작전’이 한 걸음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 [1] 양투안 양리 조미니, 이내주 역, 전쟁술, 책세상, 2005.
- [2] Young-Soo Kim,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the Battle of the East Sea through the Eyes of A.T. Mahan,’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VOL. 91, 2026, pp. 231-265.
- [3] 김웅진·김지희,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0.
- [4] 피터 버넘 외, 김계동 외 역, 정치학 방법론, 명인문화사, 2010.
- [5] Jeonghyun Kim, ‘A Comparative Study of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The Creative Convergence of the Strategic Thought of Jomini and Mahan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NST, VOL. 9, NO. 1, 2026, pp. 60-67.
- [6] 권용배, 전쟁 대가들과 만남, 양서각, 2005.
- [7]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8]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 플래닛미디어, 2014.
- [9] Sunhee Lee, Joongwan Kim, & Hanbeom Jeong, ‘The Nature of U.S. Isolationism and its Prospect in US Foreign Policy Viewed in the Trump Phenomenon,’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VOL. 38, NO. 1, 2016, pp. 281-314.

- [10]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책세상, 2003.
- [11]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김득주 외 공역, 해군전략론, 동원사, 1974.
- [12] 해군본부, 해군용어사전, 2011.
- [1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군본부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해군본부, 1987.
- [14] Dong-eun Kim, 'Alfred T. Mahan's Geopolitical Threat Perception and Thought of Foreign Policy and Changes on U.S. Foreign Policy in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VOL. 44, NO. 1, 2022, pp. 5-52.
- [15] 함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 2012.
- [16] 그레고리 프리몬-반즈·토드 피셔, 박근형 역, 나폴레옹 전쟁, 플래닛미디어, 2010.
- [17] 김석구, 제0차 세계대전 러일전쟁의 기원, 아이워크북, 2019.
- [18] 니콜라이 레비츠키, 민경현 역, 러일전쟁, 살림출판사, 2020.
- [19] 이에인 딕키 외, 한창호 역, 해전(海戰)의 모든 것, 휴먼앤박스, 2010.
- [20] 콘스탄틴 플레샤코프, 표원수 외 역, 짜르의 마지막 함대, 중심, 2003.